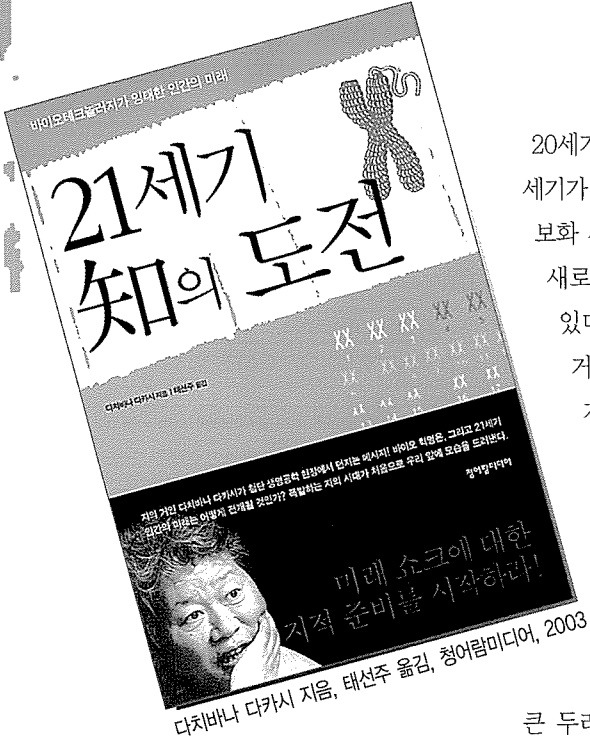


21세기 知的 도전



글_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교수 duckhwan@sogang.ac.kr

20세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세기가 시작된 우리에게 '정보화 시대'와 '생명과학'의 새로운 물질이 몰아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해서 거대한 지구촌이 하나가 되었고, 온갖 정보가 넘쳐나는 세상에서 '지능'과 '인간 복제'라는 낯선 말들이 일상화해 가고 있다. 그런 우리에게 가장 큰 두려움은 아마도 불확실

과 공포는 여전하다. 과거의 자연에 대한 공포가 오늘날에는 우리 인간 자신에 대한 공포로 바뀌었을 뿐이다. 그래서 몇몇 소위 '미래학자'들이 과거의 주술사들처럼 10년, 20년, 그리고 50년 후의 우리 사회의 모습을 예언하고 있다. 과연 그들의 예언은 어느 정도 믿을 가치가 있을까?

일본 '주간문춘'의 기자로 「나는 이런 책을 읽어 왔다」, 「우주로부터의 귀환」, 「도쿄대생은 바보가 되었는가」 등으로 이미 우리에게 친숙한 다치바나 다카시가 도쿄방송(TBS)의 2000년 맞이 특집 제작에 참여하면서 생각했던 이야기를 엮은 「21세기 知的 도전」은 그런 의문을 가진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책이다. 과연 현대의 과학과 기술은 우리에게 무엇이고, 우리의 밝은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가 담겨있다. 대학에서 불문학과 철학을 전공했던 기자가 어떻게 이런 수준의 책을 쓸 수 있을까라는 감탄을 떨쳐버리기 어려울 정도다. 비록 일본을 대상으로 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일본은 우리와 닮은 점이 너무나도 많은 국가라는 점에서 우리에게도 소중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한 우리 자신의 '미래' 일 것이다. 앞으로 10년 후의 세상은 도대체 어떤 모습이고, 50년이 지난 후에 과연 우리 인간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남게 될 것인가?

물론 인간이 한치 앞을 내다보면서 살았던 적은 한번도 없었다. 자연과 함께 느린 진화를 계속해왔던 먼 옛날에도 '내일'은 도대체 알 수 없는 공포의 대상이었을 뿐이다. 그래서 주술사와 권력자의 판단에 우리의 삶을 온통 맡겨버릴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었고, 그 대가로 우리는 그들의 절대적 권력에 무기력하게 짓눌리는 고통스러운 삶을 견뎌낼 수밖에 없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너무나도 컸기 때문이었다.

오늘날 과학의 발달로 자연에 숨겨진 신비를 전부는 아니더라도 상당한 부분 알아낸 덕분에 우리는 과거 어느 누구도 꿈꾸지 못했던 평등하고 윤택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

다치바나는 생명과학과 BT가 우리의 앞날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다. 하늘에서 주어진 운명을 거역하고 스스로의 길을 개척해왔던 인류의 역사를 살펴본 그는 BT도 역시 인간의 그런 내재적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수단이 될 것임을 예언하고 있다. 이제는 자식에게 우월한 유전자를 선택적으로 남겨줄 수 있는 부(富)를 가진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전혀 다른 유전자를 갖게 될 것이고, 그 결과



꿈도 꾸지 못할 새로운 사회 문제가 등장하게 되어 우리의 후손들을 괴롭힐 것이라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T에 대한 다치바나의 시각은 긍정적이다. 100년 전의 삶과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버린 오늘날 우리 인류의 삶을 이어갈 기본적인 경제력을 제공해줄 수 있는 유일한 분야가 바로 생명과학과 BT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생명과학과 BT에 대한 기초지식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은 21세기의 새로운 사회의 시민으로 올바른 판단을 할 수도 없을 것이며, 그런 지식을 도외시하는 기업과 국가는 곧바로 몰락의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 냉정한 현실이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그런 점에서 국민의 과학과 기술에 대한 인식, 과학자들의 연구 행태, 국가의 연구 지원 사업의 방향, 특히 청소년들의 과학과 기술에 대한 이해 수준과 관심 등에 대해서 폭넓게 진단하고 있다. 일본의 국민들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과학과 기술에 대한 인식이 원천적으로 떨어져 있으며, 양적 팽창에만 매달려왔던 과학자와 정부의 비합리적인 태도 때문에 결국은 아무도 관심을 갖

지 않는 쓸모없는 연구가 일반화되었다고 한다. 청소년들의 과학에 대한 관심도 급격히 떨어지고 있어서 이런 상황에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키지 못한다면 결국 일본은 몰락하고 말 것이라는 냉정한 비판이 담겨 있다.

물론 과학이 경제적 가치로만 평가될 수 없다는 점에서 다치바나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기는 어렵지만, 극심한 이공계 기피를 겪고 있으면서, 그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막대한 국가 연구개발 투자에도 불구하고 과학자들의 불만은 높아만 가는 원인은 무엇인지 이 책을 통해서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듯도 싶다. 그동안 일본의 과학기술 정책을 겉모습만 보고 따라왔던 우리에게 그야말로 경종이 될 이야기들이다. 지난 3년간 노벨 물리학상과 화학상을 휩쓸어버린 일본의 내부에서 이런 정도의 심각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면 당연히 우리도 일본의 문제점을 신중하게 검토해 보아야 한다. 혹시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과정으로 선택된 6T에 집중 투자하는 것으로 미래에 대한 대책이 충분하다고 자만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㉔

BOOK

유럽을 만난다 과학을 읽는다

최경희 지음, 세종서적, 2003



우리 사회에서 과학은 처음부터 '돈벌이 도구'였다. 그래서 자연에 숨겨진 신비를 알아내어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지혜를 찾아내려는 '과학'의 본뜻은 간곳이 없어져 버리고, 단순히 유용한 '돈벌이'의 수단으로 전락해버렸다.

그래서 엄청난 규모의 연구개발비를 투자하고 있으면서도 변변한 과학 박물관이나 자연사 박물관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의 삶을 누리게 된 오늘날, 젊은이들이 과학을 외면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다.

과연 선진국의 과학은 어떤 모습일까? 현대 과학의 발원지로 처음부터 과학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고 있었던 유럽의 과학 문화를 소개하는 색다른 책이 나왔다. 과학교육학자 최경희 교수의 섬세한 눈을 통해서 자연은 물론이고 그 사회의 삶과 함께 녹아있는 유럽의 과학 문화를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다. 과학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고등학생들에게 유럽 기행과 과학 이야기가 어우러진 이 책을 꼭 추천하고 싶다.